

루마니아 동행

김유정선교사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루마니아에서 소식 드립니다.

올 봄에 에마(6세)와 함께 한국을 다녀 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시는 김 선교사님이 에마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아이가 영리하니 한국에 가서라도 눈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기도 하던 중 김 선교사님의 후원자와 연결이 되어서 한국에서 에마 눈 검사와 간 초음파, 등 진료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에마 눈이 심한 원시로 사시와 약시가 왔고 오른쪽 눈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원거리는 거의 못 봅니다.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1년 정도 가림 치료를 하루 8시간씩 해주라고 하였고, 눈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야 수술은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 하여 안경을 처방해 주었지요. . .
아기였을 때 가림 치료를 해 주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고, 4살 때 다른 아이들 보다 자주 넘어졌는데 눈이 잘 안보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마 시력회복을 위해 동역자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에마는 모든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에마는 지하철에서 한국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호응을 해주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까지 하고, 여학생들과 사귀어서 사진도 찍고,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구경도 하고 에마가 아주 신났었지요. 저도 이기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목(갑상선)쪽에 이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건강은 좋은 상태로 피곤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은 급한데, 이들의 마음은 멀기만 하니 끊임 없는 기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미교회 로디카 자매와 유치부어린이



선종삼후원총무, 정희경자매, 에마와 식사

7.8월 청소년, 어린이 2회 합숙 성경캠프사역

올 여름 어린이성경캠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7월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두미, 오이, 오그라더, 티그베니등 네 곳 집시마을 청소년들(13~20세) 대상 성경캠프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목회자등 40명 함께 합숙하며 예배, 성경공부, 성경암송등 말씀위주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프기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은 체벌로 마당 빗자루로 머리 빗겨주기를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올 해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캠프를 마쳤습니다



어린이 성경캠프



빌라자매

8월 19일부터 2박3일은 집시아동(6~12세) 로툰다, 두미, 오이 세 곳 집시마을 어린이성경캠프를 하였습니다. 캠프 끝난 후 아이들이 집에 안 가겠다고 하여 내년에는 5일간 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월 5일부터 5일간은 티그베니 장애고아 자매들 12명이 여름성경캠프를 하였는데 트라이안 형제가 인도를 하였습니다.



祈禱의 통로!

오그라더 집시마을 교회건축 계획

그동안 오그라더 집시마을은 코스민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피테쉬티 사는 단이 오그라더 교회 건축을 위해 아디와 함께 부지를 구입하였고, 내년 봄에 오그라더에 교회건축을 할 계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민 과 아디 등 몇 명이 오그라더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티그베니 고아자매 미넬라의 전도사역

올 해 티그베니교회 미넬라(39세)가 고아원에서 2명(바실리카, 이라나) 전도하였습니다. 티그베니 교회에 나오는 고아자매들 15명도. 모두 미넬라가 전도 하였지요. 대부분 이들의 나이는 30~40대 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 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지 않겠어요. 부모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 할 때도 “따띠쿨 메우” (나의 아빠) 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몽클할 때가 많아요. 매 주 금요일 트라이안 형제가 티그베니교회에서 고아자매들과 성경공부를 인도합니다. 미넬라의 고아원 전도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티그베니 교회



동역목회자(아우렐, 트라이안, 크리스티)

두미레쉬티 집시교회 마리안, 네오 흐로린의 아르제쉬 기술고등학교 입학

마리안은 작년에 자동차 정비기술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네오(9학년)는 올 9월 16일 같은 학교를 갑니다. 네오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수학이 낙제 점수를 받아서 기술고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요느츠동생 흐로린도 작년에 8학년 졸업하고 말을 몰고 다니면서 고철을 줍더니 네오가 학교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기술고등학교 간다고 하여 올 가을에 두미레쉬티 집시마을에서 3명이 기술고등학교 다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면 기아대책 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차정비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술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래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대부분 집시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와 함께 강냉이 밭일을 떠나거나 소, 양 목동이나 건축 노동자로 일을 떠납니다.



네오, 마리안



집시 청소년들(캠프)

집시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

- 두미레쉬티집시마을 니콜레타(24세)는 교회를 나오면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니콜레타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빠지지 않으니 지금은 심하게 반대하고 친척들도 우리는 루다리들이니 거짓말과 흠치지 못하는 개신교는 안 된다고 한답니다. 니콜레타는 처음 두미레쉬티 마을에 전도를 갔을 때 9살로 어린이 주일예배를 나오다가 16세 시집간 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암송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자기인생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에 작정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산 버섯을 따서 생활하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니콜레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9월 17일 두미레쉬티 집시교회 사역자 크리스티 형제가 아내와 함께 스페인 포도밭 일을 떠납니다. 송어장 일터 주인이 1개월 휴가를 주어 가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아르제쉬에 월세 집을 얻기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입니다. 이 기간 아이들은 제가 돌보고, 저와 아우렐, 트라이안형제가 집시교회 사역을 합니다.
- 10월 하순경 네 곳 집시마을 청소년, 아이들 부카레스트 박물관 문화탐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9월 4일 세 곳 집시교회 장년 금식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福音 전파는 주님의 명령

루마니아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1. 집시교회 어린이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2. 벌첼레 기도방 건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소 STR. ELENA CUZA, BI.B3, SC.D, AP.79, CURTER DE ARGES, JUD. ARGES, ROMANIA.

핸드폰 4-0754911375 **E-Mail** jkyj77@gmail.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760-21-0243- 844 (김수선) - 기아대책 지로용지로 후원하셔도 됩니다.